

# “전봇대 다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목표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진경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과 세금 인하, 대외개방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경제과제라고 강조했다.

◇ “기업은 국부 원천” - 전봇대 다 뽑는다 =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의 핵심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정의했다. 기업 활동을 가장 중시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동을 가로 막은 ‘전봇대’를 뽑아 내기 위해 전경련 등이 건의한 규제완화 등을 바탕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조만간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핵심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

## ■ 취임사로 본 MB노믹스

### 모든 규제 개혁...세금 낮춰 소비 진작 대외 개방 확대, 미래 지향 국토 개발

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기술금융 활성화와 함께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통합키로 했다.

◇ “세금 낮춰야 투자 소비 신다” = 이 대통령은 “세금을 낮춰야 투자의 소비가 살아난다”고 감세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감세 정책 중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아울러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고,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대내외에 천명했다.

◇ “FTA 통해 국부 늘려야 한다” =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외경제정책과 관련, 개방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거대 경제권 및 신흥시장과의 FTA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이어 두 번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도 속도를 더해 상반기 중 타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중 FTA 역시 빠르면 올해 중 협상

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호주, 러시아 등과의 FTA 역시 점쳐지고 있다.

◇ “국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 =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고 규정하고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하여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해 사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이 최우선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낮추고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카드를 빼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택지개발권을 부여,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분양가 인상이요인중 하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은 없어진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취임식 징크스 깨졌다

코스피 22P ↑ ... MB효과는 아직 미미

25일 증권시장에서는 제17대 이명박 정부 출범을 환영하듯 코스피지수가 급등세로 마감돼 향후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지난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일 이후 4차례에 걸친 역대 신정부 출범일 때마다 주가가 급락했던 ‘징크스’도 깨진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적이라도 이른바 ‘MB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이 대내외 악재를 뚫고 주가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2.68포인트(1.34%) 오른 1,709.13으로 마감됐다.

◇ 신정부 출범효과 기대 엇갈려 =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하자 증시전문가들 사이에 일부는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공약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의 영향 등 대외변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채권보증업체 주가 반등을 계기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신정부 출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 “증시전반 영향보다 개별정책 쟁거야-민영화-대운하 공약 눈여겨 봐야” = 다만 신정부 출범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개별 정책이 주식시장에 국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시장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이슈로 민영화와 대운하공약을 꼽았다. 한국증권은 민영화와 관련해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신정부가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임기중 올해가 최대 고비”

무디스 자회사 진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경제예측 부문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25일 악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올해 이 대통령에게 임기 5년 중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다니엘 펠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새 대통령이 일련의 정책 제안과 한국의 미래 구상을 공개했지만, 그의 큰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후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기 5년 중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수 있는 올해 가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낸 높은 기대치이다. 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747’ 경제공약은 경제가 순항하고 극적인 개혁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너무 낙관적인 목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7% 경제성장은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수출과 생산, 고용 등에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는 운이 좋아도 4%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 韓銀 “고유가 지속 가능성 커”

주택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 ... 콜금리 인하 어렵다

### 석유소비량 석달째 감소

베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가 장기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 있어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위험 간의 균형관리가 중요하다고 한은이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은이 과감하게 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한은 해외조사실의 신원섭 종합분석팀장과 안상준 과장이 작성한 ‘고유가시대 장기화 : 가능성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2002년 이후 유가상승은 인위적 공급감축에 의한 70년대의 오일쇼크 때와 달리 신흥시장국의 수요확대, 원유의 생산여건 악화, 지정학적 위험의 고착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의 중장기 전망은 생산·수요증가

에 대한 예상의 차이로 예측기관마다 크게 다르지만 빠듯한 수급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장기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 주택경기의 침체 등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고유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지난 1월 석유 소비가 3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25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석유소비량은 7천94만4천배럴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 줄었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나프타를 제외하면 감소폭이 4.8%에 달했다.



이것이 입생 로랑 로고

25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입생로랑 매장에서 열린 ‘Y-mail’ 특별컬렉션 출시행사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Y-mail’은 입생로랑 수석 디자이너 유우 로랑의 친필 주소와 입생로랑 로고가 새겨진 핸드백이다.

## 상장 255개사 현금배당액 10조5천억

지난해보다 11% 증가 ... 외국인 비중이 5조원

### 12월 결산법인 분석

상장법인들의 현금배당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96%, 코스닥시장에서는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현금배당 총액도 증가했으며 주당 배당액을 시가로 나눈 시가배당률은 지난해 높은 주가 상승 때문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21일 현재

1천711억원), 국민은행(8천241억원), POSCO(7천560억원), SK텔레콤(6천823억원), 신한지주(6천204억원), 한국전력공사(4천669억원), 한국외환은행(4천514억원), KT(4천73억원), KT&G(3천40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 역시 지난 21일 현재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253개사 가운데 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205개사를 분석한 결과, 현금배당총액은 3천776억원으로 지난해 3천414억원에 비해 10.6% 증가했다.

## 주식형펀드 설정액 130조 돌파

### 3일만에 자금 유입세로

국내 주식형펀드가 3일 만에 자금 유입세로 반전한 가운데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13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자산운용협회와 국토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1일 기준 74조5천313억원으로 전날보다 900억원 증가했으며, 재투자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전날까지 이들 연속 자금유출이 생겨 총 525억원의 설정액 감소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5조5천158억원으로 재투자분 없이 248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펀드를 합친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날보다 1천148억원 증가한 130조471억원으로 13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채권형과 MMF 등을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은 MMF로의 대규모 자금유입에 힘입어 1조619억원 늘어난 330조8천559억원을 기록했다. MMF 설정액은 62조2천980억원으로 전날보다 1조138억원 늘어났다.

## 삼성 ‘삼성차 채권환수 패소’ 항소기로

삼성그룹은 25일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삼성차 채권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5조원 상당의 삼성자동차 채권환수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3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은 항소시한인 28일을 앞두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삼성의 항소에 따라 채권단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

측된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 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2조4천500억원) 받고, 삼성차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을 보전받겠다는 합의를 얻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은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트전자	정규직 제조부부 간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955-1532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문금융영업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654-8101
KJ일본어전문학원	문서작성, 상담사원/ 일본어학원 겸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8	011-9074-3723
한국신 공주공장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삼성생명전자 부품 개발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28	062-955-1609
신동	경리 보조 및 출납 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28	062-527-6611
고려시멘트	공정관리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519-1562
케이아이텍	전기공사 공무 담당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10-3021-6060
한국신병	수산물 가공 공장 총 지휘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662-1449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서버관리자/프로그램 정무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224-8564
한일투보	품질부 인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29	062-958-3420
한국대교리안	가구생산 생산업무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03	062-956-6852
길앤의노	[길앤 남성 클리닉] 간호사업무 및 기타서비스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3	062-369-5855
한국신성테크노	프레스 주물 R&D 및 자동차 부품 개발 인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942-6251
한국한국디	[평택/광주]국내외영업 및 R&D 신입, 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31-662-3335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

## 경기회복 불구 낮은 고용 노동시장 ‘미스매치’ 때문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구직자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연기하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도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5일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최근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으면서 인력 부족률이 지난해 상승세로 반전되고 부족인원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관청은 일자리를 찾는 자발적 취업연기자로 판단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직포기자들과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축소되는 최근 상황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자발적 취업연기자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의 부진으로 생산자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데다 유통 서비스업 부문도 대형화 전환되면서 고용증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부진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임시직 일자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